

'2019년 9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 MBC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19.9.24	대전MBC 대회의실	7	7	

- 시청자위원 불참자 명단 : 김선재 위원장, 김종남 위원, 박상민 위원, 임정규 위원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신원식 사장, 이재근 경영기술국장, 최영규 제작부장, 신영환 보도국장, 서주석 미디어 전략국장, 정수진 방송기술센터장, 임세혁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1	6	4	-	1	11	-	12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9	3	-	12

다. 전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11 건	10 건	
편성	유튜브를 비롯한 뉴미디어의 적극 활용	유튜브 링크시 세부 내용 자세히 기술 <19.9월 조치>	'19.8월
교양	아침이 좋다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개선	반영 가능한 수준의 의견 개선 수용 <19.9월 조치>	'19.8월
교양	출연의사의 전문용어에 대한 보다 알기 쉬운 접근 (건강플러스)	방송 제작전 충분한 사전 검토로 어려운 용어 순화 <19.9월 조치>	'19.8월
교양	다양하고 서민적인 인물에 대한 탐구, 보다 모던한 자막 (다큐에세이)	휴머니즘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인물 선정, 자막에 대한 제작진과의 협의 <19.9월 조치>	'19.8월
교양	여행지 소개시 콘텐츠에 대한 오류를 방지 (테미기행 길)	방송 제작전 사전 검토를 통해 오류 최소화 <19.9월 조치>	'19.8월
교양	시의 적절한 오프닝, 클로징 구사 (전국이 보인다)	방송 시점을 반영한 원고 작성 및 제작 <19.9월 조치>	'19.8월
교양	다양한 의견 제시는 좋으나 통일성 있는 주제의식 필요 (내가 그리는 세상)	다양한 제작팀과의 의교년 교환을 통한 주제 의식 고취 예정 <19.9월 조치>	'19.8월
보도	출연자 성비 문제 및 정치인 출연에 대한 고민 필요 (시시각각)	기본 성비를 맞추려 노력중, 다양한 정치인 출연 협의중 <19.9월 조치>	'19.8월
보도	광복절 경축식, 자료화면의 활용 등 보이나, 보다 세심한 편집 필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자료 공유, 편집 부분은 확인후 세부 조치 <19.8월 조치>	'19.8월

<p>보도</p>	<p>폭염관련 보도시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대한 인지, 에너지 자치 시대에 대한 보도</p>	<p>글로벌 기후 변화와 지역 에너지 문제에 대한 취재 준비중 <19.9월 조치></p>	<p>'19.8월</p>
<p>보도</p>	<p>산업재해에 대한 신속한 접근, 시청자를 위한 다양한 뉴스 제작</p>	<p>시청자의 니즈를 염두에 둔 뉴스 제작 <19.9월 조치></p>	<p>'19.8월</p>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	-	-	-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성명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정보 공개 사항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대전 MBC 홈페이지	시청자위원회 월간 운영실적 및 회의록 전문공개	인터넷

나. 시청자위원 명단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임기)*
위원장	김선재	배재대학교 총장	한국컨텐츠학회	문화단체	19.05.01 ~ 20.04.30
부위원장	권부남	대전 청소년 위캔 센터장	대전YWCA	청소년단체	19.05.01 ~ 20.04.30
위원	김종남	대전YMCA 사무총장	대전YMCA	소비자단체	19.05.01 ~ 20.04.30
위원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	학부모단체	19.05.01 ~ 20.04.30
위원	양선희	대전대학교 글로벌융합창의학부 교수	충청언론학회	언론관련단체	19.05.01 ~ 20.04.30
위원	김병구	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19.05.01 ~ 20.04.30
위원	박상민	정보철강(주) 부사장	미래경영인모임	경제단체	19.05.01 ~ 20.04.30
위원	서한나	잡지 Boshu 편집장	청년 고리	문화단체	19.05.01 ~ 20.04.30
위원	이규홍	안정성평가연구원 본부장	한국독성학회	과학기술단체	19.05.01 ~ 20.04.30
위원	임정규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대전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	19.05.01 ~ 20.04.30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교양	<p>1. 편성 :</p> <p>주말에 방송되는 전국이 보인다는 주말에 가볍게 볼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느껴집니다. 다만, 시간대가 너무 이르지 않은가 합니다. 대전 근교의 행사 소개를 중심으로 주말 오후에 방송해도 좋을 듯합니다. (김선재 위원장)</p>	<p>해당 프로그램은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대전, 충남 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화제, 현장, 이슈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p> <p>대전, 충남 지역의 다양한 명소나 현장 등은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 집중적으로 제작, 방송하고 있습니다.</p>		○	
교양	<p>2. 교양 : 생방송 아침이 좋다</p> <p>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 공주 예하지 마을을 소개한 코너는 리포터의 진행이 돋보였습니다. (서한나 위원)</p>	<p>늘 현장에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가에 감사드립니다.</p>	○		
교양	<p>3. 교양 : 건강플러스</p> <p>건강플러스에서 당뇨병에 좋은 음식, 축농증에 좋은 음식 등을 소개하는 것을 시청했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한번 다루었으면 어떨까 합니다. 식재료나 음식 만드는 코너에서 채식 관련 부분을 좀 더 소개했으면 합니다. (서한나 위원)</p>	<p>해당 코너는 시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방송 시점에 맞는 제철 식재료를 주로 선정해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p> <p>다만, 채식 관련 아이템은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p>	○		
교양	<p>4. 교양 : 오롯이 당신</p> <p>오롯이 당신, 택배기사편을 보았는데, 사연 속의 주인공들이 감동을 주는 따뜻한 프로그램이어서 좋았습니다. 서민들의 모습을 잘 담아내고, 50분 동안 알차게 구성한 프로그램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걸맞게 유튜브 조회수도 높게 기록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이 대전만의 특색 있는 콘서트로 발전 했으면</p>	<p>우선 긍정적인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기존 지역방송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프로그램이라 제작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행착오 또한 겪고 있습니다.</p> <p>지적하신 부분들까지 참고해 좀 더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이어가도록 하겠</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합니다. (김선재 위원장)</p> <p>얼마전 새롭게 시작한 '오롯이 당신'은 요즘의 트렌드에 맞게 개인을 주목하는 프로그램으로, 한사람을 위한 콘서트라는 기획이 최근 방송계의 힐링에 집중하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출연자의 이름에서 한충원, 한충현 등 자막이 오기가 눈에 거슬렸습니다. (양선희 위원)</p>	<p>습니다.</p>			
교양	<p>5. 교양 : 내가 그리는 세상</p> <p>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인 내가 그리는 세상은 기대를 많이 가지고 보았습니다. 형식이나 내용이 예전 것과 유사하게 보이는데, 신청만 하면 되는지, 어떠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종남 위원)</p> <p>지난번에는 우려를 언급했으나, 노잼도시, 전통시장 소개 등, 정리된 모습이 보여 반갑게 보았습니다. 프로그램 중 어설픈 나레이션보다, 자막과 음악 등으로 단순하게 구성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만 일부 회차에서는 유튜브 방송을 보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출연자의 사용 언어 중 '개쩐다' 와 같은 언어는 보다 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선희 위원)</p>	<p>프로그램의 취지 상 시청자가 직접 제작하는 콘텐츠이다보니 제작진의 개입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들은 제작진의 직접 개입보다는 시청자 제작단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p>	○		
교양	<p>6. 보도 : 노정렬의 시시각각</p> <p>9월 22일 방송된 '외국인 거주 비율 1위 충남' 편에서는 4명의 패널이 등장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현재 외국인 17명이 근무 중이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관심이 큼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자세와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p>	<p>패널에 대해서는 보다 프로그램 적합한 패널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시 수치나 통계 부분은 시청자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독력을 높이겠습니다. 시청자 의견참여에 대한 부분은 새롭게 SNS 상의 실시간 의견수렴과 투표, 통계 처리 방식을 접목해 봤는데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을 받</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다만, 프로그램에 출연한 4명의 패널의 이야기가 조금은 한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외국인을 직접 관리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나오면 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로 네팔 노동자가 나왔는데, 한국어가 너무 어색해, 생생한 느낌이 들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한국어가 아주 능숙한 노동자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출연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p> <p>그리고, 자막 부분에서 부서 직함이나 이름이 보다 더 길게 노출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시되는 수치들을 그냥 말로 전달하기 보다, 도표화하면 보다 더 이해가 쉬울듯합니다.</p> <p>마지막으로 아산 이주노동자 센터장의 의견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퇴직금 - 출국 후 지급문제는 불법체류를 막는 효과가 있어 나쁘지 않은 제도라는 생각인데, 개선하자고 주장하여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주 노동자 3회까지는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데, 이와 관련된 사실도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합니다. (박상민 위원)</p> <p>9월 8일 방송된 노정렬의 시사각각, 여야 4당에게 듣는다에 대한 의견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참여를 이끌어낸 것은 좋았으나, 얼마나 참여했나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얼마나 시청자들이 참여했는지 참여인원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양선희 위원)</p>	<p>글하여 보다 업데이트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p>			
교양	<p>7. 보도 : 적절한 단어 사용</p> <p>뉴스 아이템 중 충남 여신들, 전국체전 앞두고 주목이라는 온양 농구팀 소개하는 부분에서 ‘여신’이라는 표현을 중학생들에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선희 위원)</p>	<p>중학생 양예빈 선수는 이미 ‘계룡여신’으로 저희 뉴스를 비롯해 전국에 여러 차례 보도됐고 김연아 선수는 현역시절 고교생 때부터 피겨여왕으로 불렸습니다. 양 선수 스스로 본인을 소개할</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충남 여중생에게 여신이라는 표현은 양선희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김종남 위원)	때에도 계룡여신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수식어 또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만, 익숙하고 널리 알려진 표현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온양 농구팀은 온양여고로 중학생이 아니며 배영 선수는 성인 선수입니다.)			
교양	<p>8. 보도 : 충남의 미제사건</p> <p>화성 연쇄살인사건을 통해 대전 충남 지역의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점검은 긍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양선희 위원)</p> <p>보도부문에서 화성 연쇄살인 관련 우리지역의 미제 사건 보도는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서 좋은 보도라는 생각입니다. (양홍모 위원)</p>	대전과 충남에도 장기간 해결되지 못해 피해자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는 사건들이 적지 않습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이후 자백) 특징을 계기로 살인 사건을 비롯한 강절도, 성폭력 사건 등 수십년 째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환기할 수 있도록 보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전MBC는 과거 뉴스&포커스 보도제작물을 바탕으로 DNA 지문 활용 수사의 명암을 다룬 유튜브용 뉴스(그때 그 뉴스)도 별도로 제작했습니다.	○		
보도	<p>9. 보도 : 아침뉴스 일기예보</p> <p>아침뉴스에는 일기예보가 처음 시작할 때와 끝날 때, 2번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으로 줄이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양홍모 위원)</p> <p>아침뉴스의 날씨에 대한 부분은 저는 날씨가 두 번이라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김종남 위원)</p>	아침 뉴스에서 시청자들이 얻고 싶어하는 정보 또한 대전MBC 뉴스에서 뉴스투데이가 가지고 있는 역할등을 고려하여 아이팀 편성과 전략적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의 경우 아침 뉴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뉴스 가운데 하나이고 따라서 뉴스의 앞과 뒤에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대전MBC 아침뉴스의 송출 시간과 뉴스 시청 패턴을 분석했을 때 주로 출근 준비하면서 혹은 자녀들의 등교를 도우면서 시청하는 패턴이 지배적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때문에 날씨 뉴스의 경우 지난 1년간 위성 영상 도입과 직관적인 날씨 아이콘 도입, 기상청 날씨 데이터의 자동 연계방식 도입, 지역별 날씨의 구체성 등 포괄적인 업그레이드가 진행됐습니다. 날씨뉴스의 도입과 편집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도	<p>10. 보도 : 중복 사안 보도</p> <p>지난해 지방선거이후 대전시의 개발 이슈에 대한 문제는 계속 중복되어온 사안입니다. 이러한 중복되는 사안에 대한 보도에서 형식적 중립주의에 너무 매몰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중복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문산 개발과 같은 반복되는 사안은 배경과 쟁점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상수도 민영화 문제도 쟁점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측의 입장만을 다룬 뉴스보다, 중복 사안에 대한 분석 기사가 필요합니다. (양홍모 위원)</p> <p>하수도 민영화 등의 지역에 대한 이슈들은 좀 더 집중보도 했으면 합니다. (김종남 위원)</p>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을 놓고 민영화와 민간투자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대전MBC는 현재 재판까지 진행 중인 하수도 설비 투자 문제를 비롯해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하수처리장 문제에 관해 균형잡힌 시각을 견지하며 자세히 보도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		
보도	<p>11. 보도 : 추석 관련 뉴스</p> <p>추석 연휴동안 교통관련 뉴스에서 교통방송과의 콜라보는 좋았고, 현장을 연결해서 방송하는 것은 좋았는데, 질의-응답 식이 아니라, 연결 후 크로스토크 없이 진행되어 아</p>	도로공사 교통방송 뉴스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생방송이 어렵습니다. 저희 뉴스 시작 직전에 도공에서 제공한, 가장 최신의 교통 정보가 담긴 녹화 파일을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취움을 느꼈습니다. 크로스 토크가 안 되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p> <p>추석관련 각당의 모습 스케치에서 자유한국당 부분에서 삭발 시위장면이 나왔는데, 별도 아이템으로 다시 또 나와서 중복되는 느낌입니다. 한쪽 뉴스에서만 내보내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양선희 위원)</p>	<p>내려받아 방송하기 때문에 크로스토크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시청자들께서 일부 아이템이 중복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뉴스 제작과 편집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p>			
기타	<p>12. 기타 : 프리랜서 아나운서 문제</p> <p>저는 주변의 지인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대전MBC에 대한 주변의 의견을 받았는데요, 제일 많이 나온 문제가 여성 아나운서 채용과정에서의 차별문제, 인권위원회 제소 후 업무 배제 등에 대해서 주변 네트워크에서 많은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사내 운영에 대한 민주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양홍모 위원)</p> <p>얼마 전 뉴스데스크 앵커 교체가 있었는데요, 젊은 진행자로의 교체는 최근 방송가의 트렌드이기는 하지만, 보도에 있어서는 신뢰감, 안정성 등이 중요한데, 입사 2년차 아나운서로 교체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한 개편이었습니다. (양선희 위원)</p> <p>최근 우리지역의 이슈가 된 여성아나운서 차별문제도, 책임감 있게 해결했으면 싶습니다. (서한나 위원)</p> <p>최근 여성아나운서 문제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높습니다. 홈페이지의 시청자 게시판에도 이에 대한 답글이 없어, 더욱 궁금증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조속한 해결을 바랍니다. (김중남 위원)</p>	<p>경과를 말씀 드리면, 6월에 프리랜서 아나운서 2명이 인권위원회에 진정과 함께 미디어 오늘과 한겨레에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내용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용과정에서 남녀 차별 2. 동일 노동에 남녀 차별 <p>첫번째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지난 신입사원 채용시, 전체 7명의 신입사원중 남성 4명 여성 3명이 선발되었고, 이중 아나운서는 남성이 선발되었습니다. 특히 기술직의 경우 지역에서 드문 여성이 신입사원으로 선발되기도 하여, 신입사원 선발에서의 남녀차별은 부당한 주장입니다.</p> <p>두번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계약된 프로그램만 진행하지만, 정규직 아나운서는 방송 프로그램 진행 외에 행정, 스포츠 캐스터, 라디오 방송 연출 등의 별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아나운서와 정규직 아나운서의 업무를 동일 노동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습니다.</p> <p>이외에, 법리적인 부분의 차이가 많은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기</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p> <p>간략히 말씀드리면,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프로그램의 출연 횟수에 따라 출연료로 지급되며, 개편에 따른 교체는 방송 실무 제작팀의 결정으로 회사의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p> <p>또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요청을 하였으나, 각하 결정되기도 하였는데요, 이유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p> <p>문제는 비정규직의 정규화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p> <p>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차별 문제는 프레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방송사는 상시 고용직으로 쓰지 못하는 인력이 다수 존재합니다. 프리랜서는 출연료를 지급받는 방송인으로 방송 출연자의 대부분이 프리랜서이기도 합니다.</p> <p>이번 진정의 요지는 술자리에서의 사담을 녹취하여, 공식화 한 것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직군에 따른 차별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p> <p>젊은 여성 프리랜서 아나운서만 정규직으로 써야 하나 라는 문제는 다른 프리랜서 진행자, 작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문제로 확대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성차별의 문제가 아닌, 프리랜서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방송사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p>			